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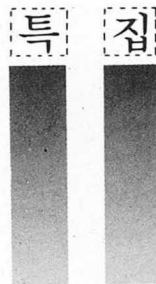
신을 위해서도 꼭 필요하다. 다시 말하면 돼지 가격이 안정되면 농가는 생산비용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기술혁신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지만 가격의 등락이 심하여 불안정하면 기술혁신을 폐하기 보다는 가격이 올라갈 때와 내려갈 때를 예측하여 가격의 변동으로 수익을 얻으려는 투기행위에 관심을 더 기울이게 되기 때문이다.

가격안정을 위해서는 생산자를 보호할 수 있는 하한가격과 소비자를 보호할수 있는 상한가격을 각각 정하여 돼지가격이 이 두 가격의 범위내에서 변동할 수 있도록하는 가격안정대의 설정이 필요하다. 돼지의 가격안정이라는 것은

가격이 일정한 수준에서 머물러 있게하는 것이 아니고 일정한 범위내에서 움직이게 하는 것이다.

돼지가격이 일정한 수준에서 머물게 되면 그 가격수준에서 생산이 가능한 농가는 돼지의 사육두수를 늘리게 되므로 생산이 증가되어 가격이 다시 떨어지게 된다. 그러므로 결국 돼지가격이 변동하게 되는데 이 변동의 범위를 일정하게 유지함으로써 가격이 떨어질 때는 한계농가는 생산을 줄이게 되고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한계농가는 다시 생산을 하게 되므로 양돈이 전체적으로 안정될 수 있다. ◇

양돈 현황과 발전방향



이 영 래
(농수산부축산과장)

본고는 농수산부 축산과 이영래과장이 본회가 주최한 연수회에서 강의한 내용을 발췌 한것임을 밝혀드립니다. —편집자주—

● 돼지가격변동폭을 극소화 시키는 정책을 펼 방침 ●

양돈산업을 어떤 방향으로 끌고 나갈 것이냐. 축산소득을 농가에 환원하여 부업농가의 소득을 올려줄 것이냐 아니면 규모의 경제입장에서 경영의 합리화를 기해 다두사육의 잇점을 살려 생산비를 떨어뜨려 국제경쟁력을 향상시키는 측면으

로 끌고 나갈 것이냐 하는 것이 우리나라 양돈정책이 해결해나가야 할 큰 과제이다.

축산은 발전 소지가 많다. 86아세안게임 88올림픽게임을 유치함으로써 육류수요가 급격히 증가하리라고 예상되며 전체육류소비의 55%를 점유하는 양돈산업은 육가공산업 발전가운데 큰 몫을 차지하리라고 본다.

작년 하반기부터 금년 3월까지의 불황을 당하면서 느낀점은 돼지가 70-80%의 가격진폭을 그리며 불안정한 가격변동을 해왔는데, 이러한 가격진폭을 어떻게 해서라도 극소화시켜 나가야

겠다는 것이며 이것을 위해 중점노력해 나갈 것이다.

작년 1월 큰돼지 1마리에 18만원까지 상승되었다가 금년 4월현재 11만원선으로 유지되고 있는데 작년 한해동안 신규 돼지사육농가가 5-10만호 증가했고 사육두수만도 150만두가 늘어났다. 이런현상은 결코 바람직한 것이 아니다.

항간에 돼지가격변동주기를 없앨 수 없느냐고 하고 피그사이클을 용납안하려고 하지만 미국의 옥수수-돼지사이클처럼 우리나라에서도 피그사이클은 피할 수 없는 현상이며 정부로서는 관측을 통해 이것을 길게 끌고 나가려고 노력하고 있다.

80년도 하반기부터 14회에 걸쳐 관측을 실시했는데 그 결과는 다 맞았다. 다만 떨어진다는 것이 생산비 이상으로 떨어져 호황을 지속시켰으며 떨어진다고 하더니 그렇지 않구나하고 잘못 판단한 농민들이 마지막 열차를 타서 이번 불황에 탈락되었다.

돼지가격진폭을 극소화시키기 위해서는 과잉과소 생산상태에서 벗어나 적절한 생산체제를 갖춰나갈 수 있는 방법론을 모색하여 탄력적으로 움직여야 한다.

정부가 금년 1월10일자로 돼지시장과 산지로 부터 수매비축을 실시했는데 수매비축 방출정책을 적절하게 조정하면 돼지가격안정에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하며 또 상시비축제도를 잘 이용하면 가격진폭 극소화에 기여하리라고 생각한다.

● 도매시장·육가공분야를 포함한 유통분야를 혁신할 방침 ●

적정한 생산조절을 하고 적절한 사육두수를 유지하기 위해서 다음 2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첫째는 축산법이 개정되어 자율적생산조



절을 유도하고 둘째 유통예고제를 통해 생산자가 스스로 물량을 조절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또 적정가격이 유지되어 신규 참여농가나 기업의 확대가, 수요가 늘어 나는 만큼 증가되어 소비가 확대될 수 있을 것이다.

수출과 가공품생산에 주력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수출창구는 더이상 막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 육가공생산에 주력하여 소비의 다양화를 기해야 한다. 그러나 현재 육가공품 생산량이 7000톤 (300만불)이지만 적어도 1,000억원대의 생산이 이루어 질 때 본격적인 산업으로 돌입되는 시점이라고 생각한다.

단기적양돈정책은 기본적으로 수매비축 소비촉진 상시비축제도를 추진하고 있고 장기적으로는 종돈생산배부체계·등록허가제를 통한 생산조절·계열화생산등을 거론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이와같은 정책을 통해 정부가 적정하게 개입하여 돼지가격을 생산비수준에서 5~10%의 마진을 보장해주는 선에서 안정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우리의 축산은 유통분야에 과감한 혁신을 할 때가 왔다. 물론 개량위주의 생산도 중요하지만 이에 못지않게 생산이외의 유통분야도 중요하므로 도축장·도매시장 육가공분야로 눈을 돌려 집중적으로 육성해야 될것이라고 본다. ◇